2024년 10월 12일 18시 26분

목포 관광객 급증.. “천만 관광 시대” 본격 시동

2019.05.08 조회수 996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년 주요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분석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3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2018년 전국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를 분석한 결과 목포시 주요 관광지점 관광객은 전년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관광객은 2018년 하반기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민선 7기 목포시가 ‘낭만항구 목포’라는 도시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우고, 맛의 도시 브랜드화,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다양하고 역동적인 관광정책을 추진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매년 전국 지자체별로 관광객 집계를 위해 증빙자료 확인이 가능한 관광지점을 지정·승인한 후 유료관광지 입장객, 무료관광지, 무인계측기 등 객관적 통계지표를 통해 파악된 관광객 수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남 동부권의 순천만 정원·습지는 60만, 여수 돌산공원 해상케이블카는 80만 명 넘게 급감한 반면, 목포시는 평화광장 바다분수 41만 명, 북항 노을전망대 34만 명, 유달산둘레길 19만 명이 증가하였다.

또, 작년 한 해 목포를 찾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둘러본 곳은 갓바위보행교 42만명, 춤추는 바다분수 40만명, 자연사박물관 36만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목포시가 자체 집계한 2019년 1분기 주요관광지점 관광객 통계를 보면 근대역사관 1·2관을 찾은 관광객이 40,71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했고, 인근 동본원사도 90% 증가한 28,652명, 바다분수는 91,082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레트로 감성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연희네슈퍼는 56,408명, 유달산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11,492명, 가톨릭 목포 성지 11,434명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천사대교 개통이후 4월 한달간 압해대교에서 북항으로 유입된 차량대수는 1일 평균 3,000대에서 4,000대로 이 중 관광버스는 평일 30여대, 주말 100~150여대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나 북항을 찾는 관광객이 앞으로 평년대비 3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목포시는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맛의 도시 브랜드화 추진이다.

맛의 도시 브랜드화는 전통의 맛과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신메뉴의 결합을 바탕으로 우수한 목포 식재료와 음식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관광상품화해 ‘맛’이라는 또 하나의 경쟁력 있는 자원의 활용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12일 서울에서 맛의 도시 선포식을 개최한데 이어, 으뜸맛집 선정, 맛지도 발간, 요식업 경영 컨설팅, 간편·단품메뉴 개발 및 청년창업 연계, 음식특화거리 기반조성, 음식관광코스 개발 등을 추진해 목포를 식도락가라면 한번쯤 꼭 거쳐야 할 맛 관광의 필수코스로 만들 계획이다.

두 번째, 국제슬로시티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는 근대역사문화유산이 잘 보존된 원도심지역은 근대로의 시간여행을 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힐링·감성 여행지로 조성하고, 아름다운 자연경관, 전통문화와 슬로푸드가 보전된 외달도·달리도는 어촌 뉴딜 300사업과 조화를 이뤄 국내 최대 바다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6월 중 국제 슬로시티연맹의 최종 승인이 나면 슬로시티 로고마크(달팽이)를 마케팅과 홍보활동에 사용할 수 있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 번째, 제 1회 섬의 날 행사를 통해 여름철 관광객을 끌어모을 계획이다.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목포시, 신안군이 공동 개최하는 제 1회 섬의 날 기념행사는 8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목포 삼학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섬 관련 학술행사, 정책포럼 뿐만 아니라, 섬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섬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섬의 날 행사는 지역민과 전국의 섬주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매주 금·토·일요일에 축제가 열린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추진했던 모든 축제, 공연, 문화예술행사를 한데 묶어 가을에 집중 개최하여 목포를 찾는 관광객이 예향의 도시 낭만항구 목포의 정취에 흠뻑 빠지도록 만들 계획이다.

세계마당 페스티벌, 난영가요제, 목포가요제, 문화재야행, 전국 통기타 연합회 공연, 목포 항구축제가 차례로 이어지며 시립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국악단 등 6개 시립예술단체의 정기공연과 버스킹 공연이 줄이어 진행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목포만의 맛, 여유와 쉼, 문화예술 등 특별한 매력을 상품화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천만 관광객 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광과 박정은(270-3541)

(http://www.mokpo.go.kr)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1-1. 목포 관광객 급증 (근대역사문화공간).jpg (283 hit/ 80.7 KB) 미리보기

1-2. 목포관광객 급증(근대역사관2).jpg (335 hit/ 62.1 KB)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상리사회복지관에서 어버이날 맞아 '효 잔치' 열려

다음글
목포시,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공연으로 …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MokPo - Si
Web Contents